

보 도 설 명 자 료  
(‘16.6.20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방폐장’ 공청회 파행부른 산업부의 불통 (‘16.6.20.  
이데일리 008면)

---

## 1. 기사내용

- 공청회가 계획대로 완료됐다며 더 이상 공청회를 열지 않는다는 산업부의 입장은 오히려 공청회 무산을 주장하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불통 자세로 논란만 키울 수 있다

## 2. 등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인 금번 공청회는 회의진행방해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나, 정부의 안전발표, 지역주민·환경시민단체 등의 의견개진 등 소정의 절차가 완료되었음
- 산업부는 금번 공청회에서 충분하게 제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소통할 계획임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환경과장 박동일 (044-203-5340)  
임형진 서기관 (044-203-5341)

